



남산공소(순성성당) / 그림 안종찬(바오로), 2024년

연중 제7주일 | 2025년 2월 23일(다해)

제1독서 1사무 26,2,7-9,12-13,22-23

경외하는 이 가여워하시네. ◎

화답송

-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우리를 죄대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대로 갚지 않으시네. ◎
-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가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들을 멀리 치우시네. 아버지가 자식을 가여워하듯, 주님은 당신을

제2독서 1코린 15,45-49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복음 루카 6,27-38

영성체송

주님의 기적들을 낱알이 전하오리다. 지극히 높으신 분, 저는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당신 이름 찬미하나이다.

대전가톨릭대학교 직수여 미사
3월 1일(토) 오전 10시 30분
대전가톨릭대학교

신학교 지원반 모임
3월 2일(주일) 오전 10시 30분
교구청 명례방

서부지역(홍성·서산·당진·보령)
예비신학생 모임
3월 2일(주일) 오전 10시 30분
홍성성당

대전가톨릭대학교 입학미사
3월 3일(월) 오전 10시 30분
대전가톨릭대학교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하청호 요셉
대전성모병원 행정부원장

20년 전 저의 서품 성구는 ‘보시오, 이 사람이오.’(요한 19.5) 버림받은 예수님, 고통받는 구원자의 모습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문자 그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혀 처형되실 때에 조용하고 욕하고

침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뺨을 맞으시고, 겉옷을 빼앗기셨으며,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셨고,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당신의 피로 율법을 복음의 축복으로! 하느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형상으로 원수를 사랑하신 분,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라는 말씀으로 사랑을 명령받습니다. ‘원수와 사랑’이라는 두 단어가 마치 ‘희망과 어둠’처럼 조합이 어울리지 않지만 두 단어는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저절로 생겨나는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 대상과 관계없이 나의 의지로 하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단연 ‘용서하는 일’입니다. 원수를 손절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너를 돌보아라’

예전에 겪은 일 중에 평소 조용하다가 가끔 한 번씩 소리를 치시는 신자분이 있었습니다. 성사를 다 드리고 힘들어 고해소에 잠시 앉아 있는데, 고해실 문을 밖에서

‘캉캉캉’ 때리면서 ‘끝났는데 안 나오고 뭘 하느냐!’라고 소리를 치거나, 여러 신자분들 앞에서 버럭 큰 소리로 말할 때는 여간 무안한 것이 아니었지요. 그러고 나서 성당에서 마주치면 사과는 없고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지나갑니다. 그때마다 저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교우들은 자녀들이다.’ 속을 누르며 성체 앞으로 나아갑니다. 며칠을 기도하는데 머릿속에 들려오는 어떤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를 돌보아라’ 아주 뚜렷히 생각 속으로 새겨지는 그 음성 안에 제 마음속에 무엇인가 놀라운 깨달음과 평화가 자리잡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죄를 짊어지고 계시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새 인간에게 필요한 법을 말씀하십니다. 악에 악으로 맞서지 않고 선으로 대하는 법입니다. 오직 선으로만 악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수사랑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원수사랑은 악의 용인이나 묵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제거를 지향합니다. 원수를 사랑함-보복하지 않고 참아줌으로써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보람있고 기쁜 일도 없겠지만, 아무리 참아주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하느님께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되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느님이 주시는 상은 원수가 회개하는 것을 보는 기쁨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악인의 집에도 해를 비추시고 죄인의 들에도 비를 내리시는 ‘하느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느님 닮아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원수사랑에 대한 하느님의 상입니다.

“우리가 흠으로 된 그 사람의 모습을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모습도 지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1110)
유판식 토마스

From: 옹호자르갈 마리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께,
이 편지를 읽으시는 모든 분께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몽골 성 소피아 본당의 신자 옹호자르갈 마리아입니다. 이번 성지 순례를 통해 깊이 깨닫고 경험한 바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이 편지를 씁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준비한 이번 순례는 기도의 힘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지 느끼게 해 준 큰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동행해 주신 모든 분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성환 본당 공동체와 몽스타 회원분들의 따뜻한 사랑에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사제 서품식에 참석하면서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봉헌하는 분들의 깊은 믿음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새 신부님들께서 엎드려 자신을 봉헌하며 온 공동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저 역시 제 삶을 어떻게 하느님께 드릴 수 있을지, 그동안 배우고 느낀 것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성지를 방문하면서, 순교자들과 성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어려운 시대와 박해를 견뎌

냈는지, 그리고 그 가슴 아픈 극심한 고통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듣고 직접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동시에, 하느님과 신앙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깨닫고 큰 감동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목숨을 바친 순교성인들의 희생을 되새기며, '나는 내 신앙을 위해 이 순교자들처럼 무엇을 바치고 희생할 수 있을까?'라는 깊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와서 보아라.”(요한 1,39)라는 주제 아래 하나되어 걸었던 순례의 길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베푸신 이 큰 사랑과 은총을 저도 널리 나누며, 삶 속에서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고자 합니다.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며, 함께 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저희 또한 여러분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진심을 담아,
옹호자르갈 마리아 드림



공동체로 스며드는 생태 사도들

빵집에서 탄소중립이 가능한가요? - 임선 켄마(대전 성심당 이사)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 생태환경위원회

재활용 우유팩 수거량이 부족해 해외에서 수입한다는 충격적인 기사를 접했다. 빵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원료가 우유와 생크림이 아닌가? 당장 시작하고 싶었지만 강도 높은 현장 업무에 우유팩까지 씻어 말리는 것은 무리라고 느껴져 주저했다. 하지만 나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다. 아파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포스터를 만들어 참여를 호소했다. 200개, 800개, 1000개를 넘게 되니 용기가 생겨 이 경험을 부서에 공유할 수 있었다. '강압적으로 느껴질까?'는 나의 기우였다. 에코라이프에 참여하는 팀원들은 자부심을 갖게 됐고 회사의 문화가 되었다.

2024년 월평균 사용한 우유팩은 무려 12만 개다. 우유팩 100개는 3kg, 재활용되면 20년생 소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과 같다. 직원들은 일하면서도 매월 256kg의 탄소중립에 동참하는 것이다. 귀찮아도 보문산에 소나무가 늘어나는 것을 상상하며 기쁘게 실천하고 있다. 우유팩 이동에도 인력과 시간이 지출되어 고민하던 중 환경공단과 MOU를 맺고 주3회 수거차량을 지원받아 쌓음 싸면비로 보내 재활용하게 되었다. 프로젝트가 알려져 전국의 카페, 빵집이 동참한다면 공동의 집 지구가 더욱 건강해질 거라 기대한다.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젊은이들 청년성서 들여다보기

● 김용우 베드로 신부 청년성서 전담

가톨릭청년성서모임은 소그룹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같은 과정의 성서모임으로 이루어진 ‘청년 소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과 함께 모이는 청년들 전체를 가리킬 때 **가톨릭 청년성서모임**(교구별: 대전교구 청년성서모임)이라고 하고, 전국적으로 친근한 용어로 **성서가족**이라 부릅니다. 한편, 말씀으로 모인 젊은이들을 단계별 소그룹으로 가리킬 때는 **그룹모임**이라 합니다. 단계별 과정에서, 청년들은 4~8명(대전교구는 4~5명 권장) 정도의 소그룹을 이루어 3~6개월 동안(단계별 상이)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눕니다. 이때, 말씀을 올바르게 알아듣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봉사자가 **그룹봉사자**입니다. 그룹봉사자는 그룹모임 후 연수를 수료한 뒤, 만남의 잔치 때 주교님으로부터 파견됨으로 그 자격을 받습니다.

가톨릭청년성서모임의 과정은 창세기 - 탈출기 - 마르코 - 요한 - 사도행전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 단계 그룹모임을 완료해야 다음 단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전교구 청년성서 전담사목부에서는 창세기(연2회) - 탈출기(연1회) - 마태오(연1회) - 요한(격년 1회) 과정의 그룹모임과 연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국 모든 교구의 그룹모임과 연수는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타교구로의 진출 시에도 각 과정에 대한 인정과 그룹봉사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청년성서에서는 1971년 최창무 대주교님께서 명명하신 용어를 따라, 성서 사도직을 살아가는 젊은이

들을 **말씀의 봉사자**라고 부릅니다. **말씀의 봉사자**는 앞서 언급한 **그룹봉사자**와 더불어, 말씀의 봉사자를 양성하는 봉사자인 **연수봉사자**와 교구 청년성서에 소속되어 상시로 그룹과 연수 및 성서 사도직 활동을 하는 **교구봉사자**가 포함됩니다. 말씀의 봉사자들은 ‘~을 할 수 있는’ 기능적인 역할보다, ‘**삶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각 과정별 연수와 봉사를 통해 하느님을 체험한 젊은이들의 생생한 나눔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소영(프란치스카 로마나)

2025년
대전가톨릭대학교 신입생

· 입학미사 ·
2025년 3월 3일(월) 10시 30분
대전가톨릭대학교 대성당

이름(세례명)	본당
김준수(스테파노)	천안신방동
문정호(요셉)	탄방동
김지우(비오)	홍성
곽준석(야고보)	원신흥동
강연우(율리오)	홍성
최상민(사도요한)	논산부창동
조원희(사무엘)	천안원성동
이은규(대건안드레아)	성환
임세민(바울리노)	논산내동



전담사목

제50차 젊은이 성령목상회

- 때 : 3.28(금) 20:00~30(주일) 17:00 2박3일
- 곳 : 새얼센터(대전 유성구 지족로 306)
- 대상 : 만20세 이상 교구 미혼 젊은이
- 모집 : 3.20(목)까지 / 문의 : (042)824-6773
- 신청방법 : 카톡플친[아자리아], 인스타DM[AZARIAH_2021]
- 참가비 : 10만원 / 선착순 : 40명
- 입금 : 농협 301-0274-0526-51
- 예금주 : 천주교대전교구성령쇄신봉사회

아자리아 초대석 with 김유정 발레리아

- 강사 : 김유정 발레리아
- 때 : 3.18(화) 20:00
- 곳 : 새얼센터(대전 유성구 지족로 306)
- 문의 : 카톡플친[아자리아], (042)824-6773



본 당

가수원본당 성경학교-탈출기

- 강사 : 윤진 니콜라 수녀(거룩한 말씀의 수도회)
- 기간 : 2.27(목)~5.15(목) 매주 목 11:00
- 곳 : 가수원성당 / 수강료 : 5만원
- 접수 : 2.23(주일)까지 가수원본당 사무실
- 문의 : (042)542-0663 사무실

천안아산 가톨릭 소년소녀 합창단

- 대상 : 천안아산 지역의 가톨릭 신자 또는 예비신자
- 곳 : 하품센터 (천안시 서북구 월봉5길 23)
- 문의 : 010-4417-1136 (지휘자)
- 목요일반
 - 예비반 : 초등1,2학년 / 연습 15:00~17:00
 - 정규반 : 초3~중2(중3까지 활동) 연습 17:00~19:00
 - 고학년반 : 중2~고2 / 연습 19:00~21:00
- 금요일반
 - 예비반 : 초등1,2학년 / 연습 15:00~17:00
 - 정규반 : 초등3~중3까지 활동 연습 18:00~20:00



교구 내 기관 및 시설

대전성모케어센터 이미용 자원봉사자 모집

- 내용 : 어르신 헤어커트
- 활동시간 : 월 1회(월, 수, 금 10:00~12:00)
- 문의 : (042)220-6901

일일 가톨릭 상장례 교육

- 때 : 3.25(화) / 4.1(화)
- 곳 : 정하상교육회관
- 피정비 : 5만원
- 문의 : 010-8848-5690

2025 바보음악회

- 수익금은 전액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 기부
- 때 : 3.9(주일) 17:00
- 곳 :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
- 좌석 : R석 2만원, S석 1만원
- 예매 : 인터파크티켓
- 대전예술의전당 홈페이지
- 특별출연 : 이해인 수녀, 지휘 차인홍 박사
- 문의 : 대전예술기획 (1544-3751)

정신재활시설 햇살한줄 이용회원 모집

- 대상 :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성인
- 이용시간 : 09:00~16:30 (월~금)
- 서비스 : 상담, 교육지원, 취업 및 자립지원사업 등
- 주소 :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별관 2층 (대덕구 오정동)
- 문의 : (042)622-7018

무료 상담소 "애우"

- 신앙문제 및 성사, 우울, 불안, 스트레스, 대인관계, 가족문제, 부부갈등 등
- 상담자 : 박종우 신부 및 전문상담사
- 대상 : 성인, 청소년, 아동(종교 무관)
- 전화예약 후 상담 / 문의 : (042)285-1234
- 매주 목요일 야간상담 가능(오후 6시부터)
- 읍내동 현대아파트 정문 옆 상가 2층

노인학대 상담 및 제보

- 곳 : 서구 문정로170번길 103 (보라삼거리 부근)
- 상담방법 : 내방, 방문상담, www.dj1389.or.kr
- 문의 : 1577-1389, (042)472-1389
- 대전노인보호전문기관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입원 안내

- '치매전문병동' 운영
- 신경과, 가정의학과, 외과, 한의과
- 성사 생활 가능
- 간호·간병·조리 인력 상시 모집
- 문의 : (041)950-1008



교회 운동 및 인준단체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셀)첫토요일 신심미사

- 때 : 3.1(토) 시작기도 10:00, 미사 11:00
- 곳 : 대흥동 가톨릭문화회관
- 문의 : 010-2330-1634

대전교구 전례꽃꽂이연구회 2월 월례회

- 때 : 2.24(월) 14:00~16:00
- 곳 : 대전교구청 명례방
- 내용 : 전례특강미사
- 작품발표 : 재의 수요일, 사순 시기, 연중 시기
- 문의 : 010-9982-8327

대전교구 음악선교단 작은평화 단원모집

- 모집 : 여성보컬(알토), 남성보컬, 기타, 건반, 베이스, 드럼
- 자격 : 음악과 주님을 사랑하는 2~30대 천주교 신자
- 소정의 오디션 후 선발
- 문의 : 010-8922-5469, 010-2865-9273

대전교구 가톨릭 소년소녀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 대전반 : 매주 수요일 19:00~21:00
- 세종반 : 매주 목요일 19:00~21:00
- 예비초3학년부부터~중3까지
- 문의 : 010-7921-3610

대전가톨릭성서모임

2025년 성서40주간 수강생 모집

- 대상 : 성경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가능
- 신구약 1년 과정(수강료 7만원)
 - 장재성당, 매주 수 19:00~21:30 / 2.26(수) 개강
 - 천안불당2동성당, 매주 금 19:00~21:30 / 3.14(금) 개강
 - 성서모임 센터(온라인), 매주 월 19:30~22:00, / 3.10(월) 개강
- 신구약 1년 6개월 과정(수강료 10만원)
 - 온양성당, 매주 수 19:00~21:30 / 3.12(수) 개강
- 신약 1년과정(수강료 6만원)
 - 세종성요한성당, 매주 목 19:40~21:40 / 3.20(목) 개강



교구 외 기관 및 시설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 곳 : 가고시마, 북해도, 아키타, 나가사키, 도쿄, 오사카 / 120만원
- 문의 : 010-3645-9028

과달루페집 사용

- 하루 이용료 : 10만원(09:00~17:00) 5만원(냉난방비)
- 식비 : 12,000원(1인 간식포함)
- 숙박비 : 45,000원(1박 3식 14:30~익일 13:00)
- 연장 추가 : 1인 1식 5,000원, 냉난방비 5,000원
- 계좌 : 신한 110-180-070959 민영란 (2일 전까지 취소 시 환불, 시간 준수)
- 문의 : 010-8683-6848

김벨 피부과병원 국내 유일 피부과 2차병원 T. (042)471-7575, 1588-5675 정부청사역 2번 출구	척추·관절 허리사랑병원 대표원장 : 김관태(바오로) 척추·관절 전문의 10인 진료 T. (042)528-7588 롯데백화점 옆	모두의 안과 원장 : 이영훈, 진선영, 백승국(라파엘) 영등포 김안과, 건양대병원교수출신 망막, 녹내장, 백내장 중점진료 을지대병원 근처 T. (042)721-2211
연세내과 (365일 24시간 진료) 내과전문의 박준용(베드로) 둔산 타임월드 정문 앞 T. (042)485-8000	대전성모안과 원장 : 박인철(미카엘) Since 1998 (전)우리성모안과 원장 (전)눈빛안과 원장 롯데백화점 맞은편 T. (042)533-0078	이안과병원 의료법인 청운의료재단(이안과병원) 병원장 : 이여덕(바오로) 안과전문의 : 7인 진료 T. (042)220-5500 대흥동성당 맞은편

사랑의집 조리사 모집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인원: 조리사 1명(주 5일 근무)
- 근무: 07:00~18:00(2시간 연장수당)
- 문의: (042)623-4297, 6234297@naver.com

나무 묵주-내가 깎아 만들기

- 8주 과정 (화: 오후, 토: 오전)
- 12명/단체환영 (010-3253-9349)
- 곳: (목동)거룩한말씀 수녀원 교육관2층
- 한국가톨릭목공예회 충청지회

직장인을 위한 축복받은 성경읽기 모임

(가톨릭성서모임)

- 가톨릭성서모임 그룹형 성경통독
- 그룹: 신명기 읽기반, 사도행전 읽기반
- 요일: 월, 화, 수, 주일 20:00 비대면 / 3월 시작
- 신청: 가톨릭성서모임 홈페이지(biblemove.com)
- 문의: (02)824-4363

강우일 주교의 푸른꿈, 제주섬 이야기

- 제주섬에서 섬, 순례(성지, 자연), 말씀초대
- 곳: 성이시돌 피정의집 (한국통합사목센터)
- 때: 4.23~25, 5.21~23, 6.9~11, 9.18~20
- 대상: 개인, 단체, 가족, 본당(사목위원, 구반장)환영
- 문의: 010-9670-9775, 010-7200-4567

세종 메리워드 영성트랙강좌 3월 개강

-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피정(3,4): 12주
- 영신수련강좌(3,5), 기도학교(3,6): 10주
- 사별자 치유 프로그램(1:1동반): 10주
- 문의: 예수수도회 010-3081-1816

메리워드 영성트랙 월요 10주 성서특강

- 내용: 요한복음 담기와 닮기
- 때: 매주 월 10:00~12:00 / 3,24(월) 개강
- 강사: 김연희 클라라 수녀
- 문의: 세종 예수수도회 010-3081-1816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권민자 수녀)

- 2박3일 피정
- 때: 3.1~3, 5.23~25, 6.13~15
- 시간: 금(17:00)~주일(15:00)
- 회비: 20만원
- 곳: 수원교구 양지 영성교육원 (031)321-9054

거룩한 말씀의 회 프로그램 안내

- 몸으로 드리는 기도(기도무용)
- 때: 3~6월 매주 화(14:00~16:00), 목(19:00~21:00)
- 곳: 거룩한 말씀의 회 / 수강비: 13만원
- 문의: 010-9151-5637

젊은이 기도모임

- 대상: 기도하고 싶은 청년
- 때: 매월 첫째 주일(3,2) 14:00~17:00
- 곳: 거룩한 말씀의 회
- 문의: 010-9151-5637

수도회 및 피정

한국의방선교회 성소모임

- 때: 수시
- 곳: 서울 성북동 본원
- 대상: 선교사제를 지향하는 청소년, 청년
- 문의: 010-8715-2846

돈보스코여자재속회(VDB) 성소모임

- 대상: 40세 미만 미혼여성으로
- 세상 안에서 축성생활을 원하시는 분
- 카카오톡: 돈보스코여자재속회(VDB)
- 문의: 0507-1306-1505

수도자들과 함께하는 부활 전례피정

- 때: 4.17(목) 16:00~20(주일) 13:00
- 곳: 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
- 참가비: 35만원, [대구은행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 문의: 010-6791-0071(문자)

청주조성성령화관 성모신심세미나

- 때: 매주 (금) 19:30~(토) 00:30
- 강사: 전국 유명강사
- 문의: (043)213-9103, 010-5482-6744
- 셔틀버스: 조치원역 신한은행 앞 18:00 출발
-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다이소 맞은편 18:20 출발
- 청주교구 교구청 18:40 출발

산내·성환공원 묘원
봉안(납골)담 분양 안내

- 가격: 1인실 사용료 2,500,000원(산내)
3,500,000원(성환)
- 관리비: 20년간 500,000원
- 문의: (044)270-3030 교구청 관리국
(041)546-7265 성환묘원 사무실



교구 성령쇄신봉사회 프로그램 안내

장소: 새얼센터 / 문의: (042)824-6771

프로그램	때	강사/내용	비고
은혜의 밤	2.27(목) 19:00	최영준 신부(작은예수회) 말씀, 미사, 안수 등	
기도의 밤	3.6(목) 19:00	강남곤 마태오(성령쇄신봉사회 말씀봉사자) 기도회, 미사, 안수 등	
천안아산지구 말씀피정	2.28(금) 13:30	말씀, 미사, 안수 등	곳: 천안청당동성당 문의: 010-9697-6772
천안아산지구 말씀피정	3.7(금) 13:30	말씀, 미사, 안수 등	



한끼100원나눔운동
2025년 사랑의 온도현황

7.7°C

총 모금 77,590,709원

[2.1~6 모금액] 29,364,814원
본당 13,464,014원 / 개인·기관·행사 15,900,800원

대형환경(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철거공사·순환 골재 및 토사생산) 계통I.C 인건
T. (041)732-0620 대표 강희권 올리오

늘봄약국

(전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약사)
약사 김주현(로사)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정문 앞
T. (042)222-0662

이바르게 치과교정과치과

교정과전문의 홍성규(미카엘)
Brace & Invisalign 교정전문
소아청소년, 중장년 Invisalign교정
둔산 타임월드네거리 T. (042)482-3601

라파엘교육연구소

노인 긍정심리 지도사
그림책 감성코칭지도사 자격증반 모집
010-8712-9272 김현진 아가다

구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 우울증, 공황장애)
원장 구미량(헬레나)
롯데백화점 건너편 T. (042)532-7009

세종가발 다래모

맞춤가발전문업체, 향암가발, 가발수선
(하이모경력자 운영)
T. (044)865-3123



공동의 집을 살리는 대전교구

vol.5

2040 탄소중립하다

교회 안에서의 움직임

본당 및 기관 온실가스 진단 신청 마감
2월 28일(금)까지
불휘햇빛발전협동조합으로 신청

생태환경위원회 1차 정기회의 및
사회복음화국 총회
3월 8일(토) 10:00 교구청

불휘햇빛발전협동조합 대의원 총회
3월 8일 (토) 14:30 노은동성당

불휘햇빛발전협동조합 홍보미사
3월 22일(토) ~ 23일(주일) 천안신방동성당
4월 5일(토) ~ 6일(주일) 목천성당

탄소중립인증 접수 신청
3월 31일(월)까지 생태환경위원회로 신청
신청방법 본당으로 발송한 공문을 참고하여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이메일 farmchoi@hanmail.net
문의 010-3452-9702 생태환경위원회

생태영성특강 <쓰고 버리는 문화와 우리의 생활양식>
4월 6일(주일) 10:00 교종미사 계룡성당

주님수난 성 금요일 제4회 거리 십자가의 길
4월 18일(금) 11:00 전민동성당

2025 찬미받으소서 주간
5월 18일(주일) ~ 25일(주일)

2025 찬미받으소서 주간 기념미사와
탄소중립 인증서 수여식
5월 19일(월) 예정

세상에서의 연대 움직임

금요기후피케팅
매주 금요일 11:30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
천안지구 내 성당 인근

보문산 난개발 반대 거리미사
매월 셋째 주 금요일 11:30 대전시청 북문 앞

세종보 재가동 종단을 위한 미사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15:00 세종보 천막농성장

**생태환경위원회 2025년 활동주제
: 창조세계를 돌보는 희망의 순례자들**

내동성당



내동성당 희망의 순례자들

설 명절을 지내고 내동성당은 2월 첫 주에 계획했던 대로 올 2025년 본당 사목지표 가운데 두 번째 지표인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요즘 말로, 주우면서 조깅을 한다는 '줍깅'입니다. 교종미사가 끝난 후 전 신자들이 함께, 성당 주위를 구역별로 나누어 쓰레기를 줍고 담소도 나누며 걷기도 하는 줍깅을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교우들은 성당 주위의 담배꽂초, 플라스틱 조각, 휴지 등 쓰레기를 주웠고, 인근 초등학교 팬스 안에 널려있는 오물들을 긴 집게를 이용하여 건져 올렸습니다.

성당 바로 앞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쓰레기가 쌓여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인데, 그곳도 교우들의 손발이 지나가고 난 뒤에 말끔하게 치워졌습니다.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여 만든 푸대주머니에 쓰레기를 담아 들고 들어오시는 신자들의 얼굴은 밝고 환했습니다.

"이렇게 청소를 하니 좋네요!"

내동성당은 작년에 처음으로 사회복음화분과가 생겼고 그동안 13명의 분과원들이 서로 소통하며 할 일을 찾아나갔습니다. 맨 처음 본당 신자들과 함께한 활동은 우유갑과 멸균팩을 모아 한살림에 전달하여 이루어지는 몽골 숲 가꾸기였습니다. 2024년 6월부터 12월 말까지 5,523장의 우유갑과 멸균팩을 모았고, 이에 해당하는 35,741원의 기금을 몽골에 기부했습니다. 내동성당 신자들이 몽골에 나무 한 그루를 심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 11월에 기후위기 피해를 겪는 이웃을 위한 바자회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본당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나눔으로 기후위기에 취약한 이웃을 위한 이불과 난방비를 지급했으며, 지역 내 생태계 보존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응원하는 선물을 마련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이 바자회를 계기로 아예 본당에 상설 나눔 가게를 열었고 본당신부님께서 "희망의 순례자들"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이어 2025년 1월 새해를 시작으로 "희망의 순례자들" 내동성당 나눔 가게가 운영되고 있고, 역시 많은 신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이제 물품들이 늘고, 매장의 수입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입이 느는 만큼 우리는 지나친 소비를 멈추고 이미 만들어진 물자를 순환시키며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활동을 통해 생태본당 공동체가 되는 꿈을 꾸어봅니다. 그리고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는 본당 모든 신자들이 "희망의 순례자들"입니다.

수선 바느질 교실

봉산동성당에서는 지난해 '수선 바느질 교실'을 진행하면서, 옷을 고쳐입기 위한 기법을 배웠습니다. 그 후속 모임으로 올해부터는 '수선 바느질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빨리 소비되고 버려지는 옷 문화를 바꿔서, '고쳐 입고 오래 입는 즐거움'을 알자는 취지로 기획했습니다.

본당 교우와 지역주민이 선착순 신청으로 시작했고, 재봉틀 사용법과 자수기법을 배웠습니다. 버려지는 옷들을 나만의 옷으로 고쳐 입는 즐거움을 알아가면서, 바느질하는 시간의 평온함도 느꼈습니다. '수선 바느질 모임'은 수선할 옷을 가져와 같이 수선하고, 나만의 바느질 작품도 완성합니다. 수선한 옷과 바느질 작품으로 연말에 전시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처해있는 지구환경을 위한 공부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을 위한 여러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일상에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을 시도하고 공유하면서, 함께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봉산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님 회칙 「찬미받으소서」 반포 10주년 : 찬미받으소서 운동의 가치

번역 오현화 안젤라(한국가톨릭기후운동 공동대표)

‘찬미받으소서 운동’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찬미받으소서」가 반포된 2015년 시작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가톨릭 공동체가 선의의 모든 사람들과 협력하여 우리 공동의 집을 돌보고 기후 및 생태적 정의를 달성하도록 격려하고 행동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하며, 「찬미받으소서」를 비롯한 교회의 사회교리 문헌을 읽고 우리의 일상 활동과 연결합니다. ‘찬미받으소서 운동’의 다섯 가지 가치를 소개합니다.

1. 믿음과 희망에 기반한 활동



광주신관동성당 기후파제당

우리는 창조주 하느님과 피조물에 대한 더 큰 사랑을 향해 우리 마음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생태적 회개”(「찬미받으소서」 5항, 217항, 220항)에 전념합니다. 창조세계에 담긴 하느님의 메시지를 “경외와 경이로움”(「찬미받으소서」 11항)으로 경청하고 피조물의 부르짖음에 공감하고 귀 기울이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성찰하고, 단순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실천합니다.

우리는 **관상과 행동**을 함께 수용합니다. 성찰과 기도의 느린 속도의 ‘생태적 영성’을 실천하는 동시에 생태 및 기후 위기의 규모에 걸맞은 야심찬 행동을 촉구합니다.

3. 서로 돌봄



세종보 재가동 중단 거리미시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찬미받으소서」 91항). 우리는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찬미받으소서」 49항)에 귀를 기울이며 생태, 문화, 사회, 정치, 경제 문제를 서로 얹혀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통합 생태론”(「찬미받으소서」 137항-162항)의 세계관을 받아들입니다. 생태 및 기후 정의를 위한 야심찬 행동은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자직과 왕직”(교회헌장 31)을 실천하는 것의 일부이며,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 계시는 하느님”을 보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도직을 이어가는 것(「찬미받으소서」 87항)입니다. 우리의 **예언자적 행동**은 ‘죄의 구조’에 도전하고 ‘급진적 변화’(「찬미받으소서」 171항)를 촉구하는 동시에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는 것입니다.

5.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기르기



보문산 순계길 반대 연대 활동

우리는 창조세계와 교회의 풍부한 **다양성**에서 자양분을 얻으며, 각 개인이나 조직이 가진 고유한 은사를 존중하면서 공동의 집을 돌보는 데 있어 일치를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세계적 연대의 영성’(「찬미받으소서」 240항)을 실천하며, 이를 통해 지역적 상황과 전문성에 맞게 전 세계적으로 협력합니다.

우리는 교회와 세상 모두에 있습니다. 창조 세계에 대한 사랑이 “우리를 보편적 친교로 부른다.”(「찬미받으소서」 76항)는 말씀처럼 가톨릭 가족 전체와 함께, 다른 그리스도인, 다른 신앙 공동체, 사회 및 환경 운동과 하나의 인류 가족으로서 **다리를 놓습니다**.

가톨릭 신앙은 우리에게 행동을 촉구합니다. 우리의 태도와 행동은 성경과 가톨릭 사회교리의 가르침에 따라 이루어지며 회칙 「찬미받으소서」는 우리의 사명에 영감을 불어넣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고”(「찬미받으소서」 13항), “불의는 무적이 아니다”(「찬미받으소서」 74항)라는 복음적 **희망** 속에 살면서, 우리의 삶과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기 위해 이 사명을 기쁘게 수행합니다.

2. 생태적 회개에 전념



거리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요한 13,34-35). 따라서 우리 자신, 이웃, 그리고 우리와 공동의 집을 공유하는 모든 생명체, 특히 미래 세대를 포함한 “가장 취약한”(「찬미받으소서」 48항, 64항) 사람들을 위해 “**돌봄의 문화**”(「찬미받으소서」 231항)를 조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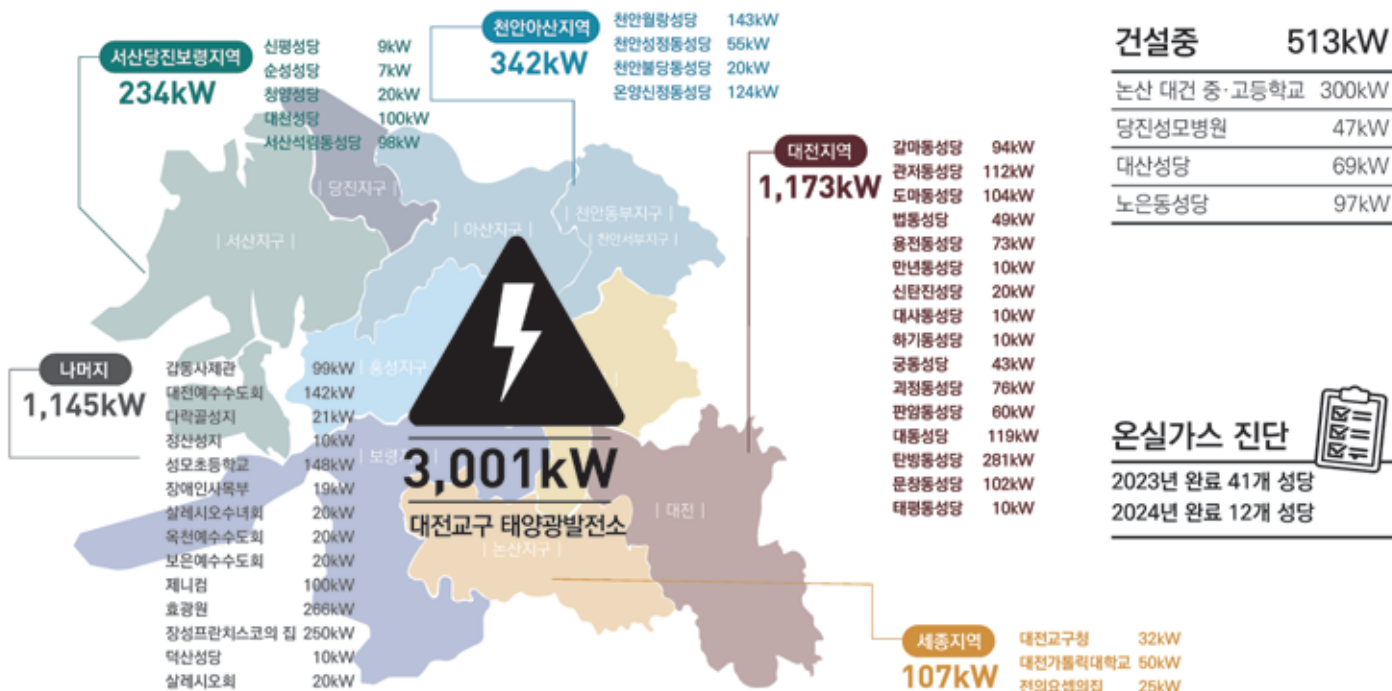
서로를 돌봄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보편 교회와 친교를 나누며 생태적 회개와 공동의 집을 돌보는 여정 안에서 **시노드적 과정**을 구현합니다.

4. 통합적이고 예언자적인 접근 방식 수용



상적 적탄화력 발전 반대 순례

탄소중립대전교구



2030 전기에너지 자립

10MW

2030 전기에너지 자립에 필요한 태양광발전소

- 본당 145개, 사설 55개 등 200여 곳
- 평균 50kW규모 * 200곳 = 10,000kW = 10MW
- 2040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난방, 차량관련 탄소배출도 전환해야 합니다.

2030(전기에너지 자립) 목표 달성률

30.01%

매년 1MW 이상 설치
(15억 정도의 사업비 필요)

불휘출자 이모저모

조합원으로 탄소중립해주세요!

불휘햇빛발전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안내

042.223.2220



출자액

반석동성당	130,500,000
하기동성당	125,600,000
서산석림동성당	124,300,000
천안성정동성당	103,900,000
만년동성당	58,800,000



조합원

반석동성당	73
전민동성당	71
복수동성당	69
노은동성당	66
서산석림동성당	65



신자수 대비
조합원 비율

천안청당동성당	5.58%
복수동성당	5.11%
하기동성당	4.89%
천안용곡동성당	4.00%
서산석림동성당	3.67%

출자 랭킹 상위 5위권에 랭크된 본당들은 조합에서 홍보미사를 봉헌했던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 외로는 김대건 베드로 이사장 신부님께서 계셨던 복수동성당 신자분들이 개별적으로 출자해 주셨습니다. 본당별 조합원 가입신자와 출자액 순위로는 반석동성당이 1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본당 신자수 대비 조합원 가입 인원 비율은 천안청당동성당이 5.58%로 1위, 그 뒤로 복수동성당과 하기동성당이 상위권을 차지하였습니다.



잠자는 어린왕자 베드로에게...

베드로 이렇게 잠꾸러기였나? 축구를 좋아하는 베드로... 그만 일어나자... 공부를 못해도 좋고 까불어도 좋으니, 그냥 너 그대로 우리 곁에 있어주면 되니까... 눈뜨고 너의 예쁜 두 눈을 바라보고 싶구나.

너를 만난 건 2019년이었네. 전입 온 이모는 은율이 첫영성체를 하고 첫 복사를 단장인 베드로 형과 한다며, 설레고 떨려 하던 그 모습 때문에 베드로를 더 기억하게 되네. 사춘기라는 약을 먹고 난 후 잠시 성당을 떠나 있는 너를 보면서 베드로 엄마는 본당 봉사를 멈추지 않더구나. 엄마의 기도는 무엇이였을까? 베드로의 건강과 주님을 잊지 않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 오길 바라지 않았을까?

그런 네가 훌쩍 자라 청년 같은 얼굴과 몸으로 23년 12월 추운 겨울 성탄을 앞둔 날 불쑥 주일학교에 구름 처럼 친구들을 몰고 나타났다. 너무 반가운 나머지 주책맞게 호들갑을 떨며 너를 칭찬하고 용감하게 등도 쓰다듬어 보며, 다시 온 너를 바라보니 너무 좋더구나. 엄마는 '아휴 꾸준해야 할 텐데~'라며 싫지 않은 내색을 하시더구나. 그런 베드로 엄마에게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지금이 중요하지.'라며 웃던 날이 겨우 한 달 되었을까? 너의 소식을 듣게 된 건 2024년 1월 26일 이른 아침 새벽운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크게 다쳤다는 소식이었어.

이모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눈물 흘리며 하는 기도, 그냥 살려달라는 기도만 했다. 그런데 9개월이 지난 지금 그 기도를 후회한다. 탈출기의 백성처럼

목이 뻗뻗한 이모는 살려주셨는데, 왜 계속 잠만 자게 하시느냐고, 살려주셨는데 이제 다른 걸 요구하는 나를 본다.

그런데 베드로, 뻥뻥하면 어떠니? 내가 우리와 눈을 마주 볼 수 있다면, 너의 입에서 엄마라고 불러주게 해달라고 요구하면 왜 안 되니? 이런 투정도 혹여 너에게 해가 될까 봐 방구석에 숨어 몰래 속으로 따져 묻는다. 내가 이럴진데 엄마 아빠는 어떠실까?

베드로, 우리가 모두 모여 너에게 닿을까 부른 '소중한 사람을 위한 기도' 들었지? 실력은 전문가가 아니지만 우리 본당 백 여명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한자리에 모여 작은 초를 켜고 불렀단다. 그렇게 소중한 존재이니, 어서 긴 잠에서 깨어나렴. 너무 잠을 자서 녹아내린 지금 너의 근육도, 경직되어 있는 팔과 다리도 다 괜찮으니 눈 떠서 "엄마! 아빠!" 하고 불러주렴. 우리 본당 모두가 그리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정성껏 치료비를 지원해 주신 천안동부지구 사회복지분과 모두가 너를 기다린다. 너의 예쁜 두 눈을 모두가 볼 수 있게, 훌훌 털고 일어나 너의 꽃 같은 삶을 살아가렴.

주님, 믿음이 깊은 백인대장의 종을 고치셨듯이, 중풍 병자를 데려간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듯이 베드로를 고쳐주소서. 아멘.

베드로를 사랑하는 천안신부동 사회복지분과 일동

황희숙 베로니카 천안신부동본당



서천군립 노인요양병원

서천군 복지마을(구 서천어메니티복지마을) 내에 위치한 서천군립 노인요양병원은 천주교대전교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노인전문의료기관입니다. 사제와 수녀가 상근하며 '행복, 친절, 존중'을 바탕으로 가톨릭 정신에 의한 영적 서비스와 양·한방 협진 및 24시간 간병서비스 등 신뢰받는 의료서비스를 통해 진정한 효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 치매전문병동 운영 사회사업프로그램(공연, 공예 등)
- 신경과, 가정의학과, 외과, 한의과 물리치료, 한방치료, 성사 생활 가능
- 입원 외 외래 진료 가능
- 간호, 간병, 조리 인력 상시 모집

■ 입원상담 (041)950-1008

미리내성모성심수녀회 종신서원식



총대리 한정현 주교는 2월 13일(목) 미리내성모성심수녀회 대성당에서 종신서원식을 주례했다.

세종성요한본당 여성구역총회 개최



세종성요한본당(주임 강길원 신부)은 2월 8일(토) 여성구역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여성구역총회는 신임구역장들의 임명장 수여와 전년도 활동보고, 올해 활동계획에 대해 토의했다.

세종성프란치스코본당 성서사십주간 종강미사



세종성프란치스코본당(주임 최견우 신부)은 2월 11일(화) 저녁미사 후 성서사십주간 종강미사를 했다.

40주간의 성서공부를 마치기 위해 많은 신자들이 미사에 참례했고, 미사 후에는 개근을 한 신자와 성서공부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상패수여식이 있었다.

성서공부를 통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참된 신앙인으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천안두정동본당 초등부 주일학교 졸업미사와 중등부 복사단 졸업식



천안두정동본당(주임 이용호 신부)은 2월 1일(토) 초등부 주일학교 졸업미사와 중등부 복사단 졸업식을 했다.

이날 11명의 초등부 학생들과 4명의 중등 복사들이 졸업하였고, 담당 신부는 그동안 성실하게 초등부 주일학교 생활을 하고 복사단 입단 후 졸업 때까지 열심히 전례봉사(복사)한 학생들을 격려하고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축복했다.

버드내본당 전 신자 사목총회



버드내본당(주임 김영삼 신부)은 2월 9일(주일) 처음으로 전 신자들이 함께 소통의 시간으로 전 신자 사목총회를 했다.

아침 10시부터 본당에 모여 버드내본당 발전을 위하여 각자의 진솔한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고 정성 가득한 떡국 점심도 함께 나누어 먹고 각 구역별 웃돌이를 통한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금사리본당 2025년 확대 사목 평의회 연수



금사리본당(주임 전영우 신부)은 2025년 봉사할 사목위원을 임명하고 2월 9일(주일) 사목위원과 구역장, 단체장이 모여 연수를 했다.

이번 연수는 교구 사목지표에 따른 사목 계획 발표와 연간 본당 활동 계획을 논의, 본당 사목 계획에 따른 실천 방향을 그룹별 토의와 발표, 본당 2024년 결산과 2025년 예산 보고 및 사업 계획 발표로 진행되었다.

이번 확대 사목 평의회 연수를 통해 2025년 사목 계획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금사리 공동체의 힘찬 출발을 시작했다.

천안구룡동본당 복사단 겨울캠프



천안구룡동본당(주임 이정옥 신부)은 2월 3일(월) 복사단 전원이 참여하는 복사단 겨울캠프를 서울 롯데월드에서 진행했다.